

지역 소식통

부안군 전북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공모 선정

부안군은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비 7,6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특성과 산업 여건에 맞춰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관내 기업에 채용장려금, 마케팅 지원, 안전보건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도비에 군비 1,500만원을 더한 총 9,100만원을 활용해 기업 체질 개선과 미취업자 고용 촉진, 찾아가는 일자리 서비스,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부안군일자리센터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지역특화품목

농가 비닐하우스 지원

정읍시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오는 2월 4일까지 수박, 애플망고, 딸기 등 지역 특화 품목 재배 농가에 비닐하우스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채소, 과수, 화훼류 재배를 희망하는 지역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읍시 육성 품목(수박, 토마토, 방울토마토, 딸기, 멜론, 애호박, 오이, 감자, 생강, 배, 복숭아)과 아열대 과수(애플망고, 바나나, 파파야 등)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을 우선순위로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내용은 단독·연동 비닐하우스 신축, 관수 시설, 자동개폐기 설치 등이 포함된다. 지원 가능한 비닐하우스 면적은 최소 660㎡에서 최대 4,000㎡까지로, 영농 규모에 맞춰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2월 4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사업 대상자가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인구정책 새 방향 제시

주민등록인구 5만명 유지·생활인구 7만명 증가... 생생으로 만든 인구정책 '성과'

전북 고창군이 주민등록인구 5만명(2025년 12월말 기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인구감소 시대 속에서의 의미 있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단순한 숫자 방어를 넘어,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상생을 통해 인구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자연적 인구(사망·출생) 감소 흐름 속에서도, 사회적 인구(전입·전출) 증가를 통해 주민등록인구 5만 명을 유지하며 지역 행정·교육·경제의 최소 기반을 안정적으로 지켜냈다.

이는 민선 8기 고창군의 인구 지키기 투트랙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던 분석이다. 먼저 고창군에선 최근 2~3년새 아파트 신축 분양과 특성화중·고교의 선전으로 유입인구를 끌어 올렸다. 동시에 유출인구를 막는

데도 총력전을 펼쳤다. '인구 5만 지키기 범국민운동'을 관내 유관기관·사회단체 등과 추진하면서 타지역 유출을 막아냈다.

고창군은 인구정책의 시선을 주민등록인구에만 두지 않았다. 군은 일찍이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해 통근·통학·관광·체험·업무 등으로 지역을 찾는 사람들을 지역 활력의 주체로 끌어들이었다.

농촌유학, 위계이션, 문화공동체 조성, 체류형 관광콘텐츠 확충 등을 통해 고창군의 생활인구는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5월 기준 고창군 생활인구는 42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7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고창군의 '체감 인구'는 5만 명을 넘어,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있다.

고창군은 현재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인구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있다.

정주인구를 지키는 동시에 생활인구를 늘리고, 나아가 관계인구가 다시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인구정책 컨트론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주거·일자리·교육·문화·관광을 연계한 종합 전략을 추진 중이다.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선 협업 체계 역시 고창군 인구정책의 중요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고창군은 "누구나 고창에 오고 싶고, 오래 머물며, 상생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며 "앞으로도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상생을 통해 인구 개념의 관을 바꾸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시내버스 승강장 대대적 개선 나서

올해 9억8000여만원 예산 투입... 시설물 정비·발열 벤치 설치 등

정읍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9억8,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 대대적인 승강장 정비에 나선다.

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적극 반영해 승강장 신규 설치와 노후 시설 개선, 편의 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먼저 노후화되거나 이용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교체 및 신

규 설치(30개소)에 3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또한, 승강장 지붕 누수 보수 등 285건의 시설물 정비에 1억8,700만 원을 배정했다.

특히 겨울철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추위를 녹여줄 △탄소 온열 의자(발열 벤치)를 50개소에 설치하는데 1억5,500만 원을 투입해 편의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1억 1300만 원을 들여 연 4회 승강장 청소 용역을 실시하고, 4,000만 원을

투입해 승강장 표지판 40개소를 정비해 시인성을 개선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여 시민들의 발이 되는 시내버스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예산 소진으로 미처 조치하지 못했던 민원 사항까지 이번엔 신속하게 처리해 시민들의 체감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제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며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시내버스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농기센터, 한파 대비 노지작물 동해 예방 철저 당부

25일까지 영하 10도 강추위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김양녕)는 오는 25일까지 강추위가 영하 10도 안팎의 예보로 지역 내 농가에 보리·밀·마늘·양파 등 노지작물과 시설하우스의 동해(언 피해) 예방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밝혔다.

특히 토양이 녹았다가 다시 어는 과정에서 서릿발 발생 및 뿌리 들림 현상이 확대될 우려도 있어 센터는 노지작물 재배 농가들에게 배수로 정비를 통해 습해를 방지하고 담압(흙 눌러주기) 작업으로 작물 뿌리의 동결·들림 피해 예방, 한파에 약한 작



물은 비닐 멀칭 또는 부지포 덮기로 지면 온도 유지, 시설하우스는 낮 시간대 기온이 상승할 경우 일시적으로 피복을 열어 내부 습도를 조절하고 결로로 인한 병 발생 예방 등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한파 이후 기온이 완만히 회복될 때까지 추가 시비 등 생육 촉진 작업은 자제하고 과수원 인접지나 시설물 주변 작물은 눈 녹은 물이 얼어붙지 않도록 배수 상태를 점검할 것을 밝혔다.

김양녕 센터 소장은 "이번 한파로 부안 지역의 맥류·마늘·양파 등 월동작물과 시설작물의 동해가 우려된다"며 "시설하우스 보온 강화와 노지작물의 서릿발 피해 예방 등 기본 관리 사항을 철저히 하고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나눔대화 5곳 성황리에 진행 중

심덕섭 군수 "주민들의 목소리 놓치지 않는 행정 추진하겠다"

심덕섭 고창군수가 14개 읍·면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2026활력고창 나눔대화'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심덕섭 군수는 13일 고창읍을 시작으로 전날 성송면까지 5개 읍·면 방문을 마치고, 나눔대화는 다음달 11일까지 진행된다.

심덕섭 군수는 지난해 주요 성과와 올해 운영계획을 보고한 뒤 질의응답을 통해 새로운 의견도 경청했다.

군민들도 폭설과 한파에도 준비된 좌석을 가득 메우고, 통로에까지 자리 잡으며 군정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올해부터 1개 읍·면에 하위 읍·면별을 배정해 조금 더 심도있는 논의의 장이 이어지고 있다.

고창읍에선 "마을 앞에 스포츠타운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하천을 건널 다리가 놓여 있지않아 먼길을 돌아가야 한다"며 다리 건설을 건의했고, 신

림면의 한 주민은 "마을회관이 오래돼 벽면 곳곳에 균열이 생겨 불안하다"고 안전진단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외에도 문화·관광자원 개발과 인구유입정책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심덕섭 군수는 현장에서 군민들의 군정 사항에 관한 고견과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고, 틈틈이 개인수첩에 메모하는 열정을 보였다. 고창군은 현장 방문,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추진여부와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심덕섭 군수는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주민에게서 읍·면발전에 대한 해답을 들을 수 있었고, 군민의 호된 지적도 함께 이어져 정말 허심탄회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정읍 농협, 고향사랑기부금 4000만원 상호기부

지난 21일 고창군과 정읍시 지역 농협협 조합장들과 시군지부장들이 고창군청을 찾아 상호기부식을 추진했다.



이날 행사는 고창군수와 김성훈 농협중앙회 전북 총괄본부장, 이미정 고창군 지부장, 김순기 정읍시 지부장과 8개 농협 조합장들이 참석해 총 4000만 원을 기탁했다.

고창·정읍 농협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로 2024년·2025년 각각 4000만원에 이어 올해까지 3년간 상호간에 마음을 접해왔다.

고창군은 NH농협 군지부 외 6개 농·축협, 정읍시는 시지부 외 8개 농·축협이 상호기부에 참여했다.

고창군은 기탁받은 고향사랑기부금을 청소년, 취약계층, 지역 활력 증진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금사업에 투명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기부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힘을 보태겠다.

고창군수는 "정읍은 지리적으로 고창과 가까운 이웃이며, 농업과 농촌이라는 공통 현안을 함께 안고 있다"며, "소중한 기탁금이 농업·농촌 발전과 지역 활력 제고에 쓰일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운용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